

**전일동향**

전일대비 6.50원 하락한 1,449.90원에 마감

1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6.50원 하락한 1,449.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40원 하락한 1,454.00원에 개장했다. 장 초반부터 환율은 달러 약세 흐름에 동조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위안화 약세 및 결제수요 유입에 환율의 하단이 제한되며, 1,449.9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0.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12.49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54.00	1457.20	1420.00	1449.90	1450.80
	엔화	1008.13	1017.38	980.55	1009.74	-
	유로화	1631.18	1654.52	1596.10	1646.11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37	-6.85	-15.18	-29.14
	결제환율(수입)	-1.1	-5.95	-13.32	-25.7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글로벌 약달러 충격에...1,42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49.90) 대비 27.90원 하락한 1,419.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 고조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 은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84%에서 12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재보복 관세 대응에 양국간 무역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편 4월 소비자신뢰지수는 50.8로 예상치(53.9) 및 전월치(57.0)를 크게 하회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7%로 전월치(5.0%)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중 관세전쟁이 미국 경제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등에 달러인덱스는 장중 99선까지 하락하며 3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엔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선호 현상이 약해지며 상대적인 강세를 시현했다. 금일 환율은 약달러 충격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증시 외인 순매수세 및 수출업체 추격매도 등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에 환율의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중 관세 갈등 지속에 위안화 고시 환율에 따라 원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판단된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416.00 ~ 1427.33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888.2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7.90원 ↓
	■ 美 다우지수 : 40212.71, +619.05p(+1.5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4.6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1941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